

## 금강하류의 포구 취락-웅포를 중심으로-

### River port settlement along the lower Keum River in Ungpo Region

방갑주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ildasiil@hanmail.net)

웅포는 금강의 배후 습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일찍이 나루 기능과 내륙 수운을 통해 다른지역과 내륙지역을 이어주는 포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서해안과 가까운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어선의 입항으로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고, 정기시장이 열리면서 육상 교통이 발달되기 전까지 포구 기능이 유지되었다.

웅포는 백제시대에 포구가 형성되어 중국과 해상으로 교역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은 인근 입점리 고분에서 중국 유물의 출토로 입증되고 있다. 신라 시대에는 당나라 군사가 웅포에 상륙하기도 하였다. 고려말기에는 진포대첩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1900년 이전은 범람원의 자연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침수의 위험이 적은 중웅을 중심으로 취락이 분포하였다.

1898년 군산이 개항되면서 웅포에 일본의 거류 민단의 왕래로 일본인이 나루의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나루 기능 등이 강화되었다.

1910년대를 전후하여 면사무소, 순사주재소, 공립보통학교 등이 중웅에 들어서면서 웅포는 근대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어선들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수산물의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강변인 서웅에 객주집 등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된 이후에 웅포 지역도 영향을 받았다.

일제의 시장 정책도 포구 취락의 시장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20~30년대에 중웅에서 서웅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를 따라 기능체들이 입지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1940년대의 말에도 강변에 가까운 배후습지의 습한 곳을 중심으로 갈대숲을 이루고 있었고, 갈대를 이용하여 갈자리를 가공·생산하였고, 이것은 웅포 주변은 물론 전국적으로 판매 범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웅포 지역은 1950년대까지 내륙수로의 기능 등을 유지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육상 교통의 발달로 내륙 지역과 금강 연안 및 외항의 수운 연결 기능이 축소되었고, 그 후로 유지되었던 내수면 어업도 1980년대 초반의 금강 하구둑 공사로 인하여 급격히 쇠퇴하였다.